

쿠데타를 낳은 5월, 권력과 폭정의 함수관계



도 많음으로써 피를 덥게 하는 계절인 탓이다. 중요한 것은 그 피가 네거티브(negative) 쪽으로 움직였느냐, 포지티브(positive) 쪽으로 움직였느냐 하는 점이며, 그 방향에 따라 나라와 민초들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5월을 '청춘예찬' 외우기에 급급한 시간으로 삼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우리네 교육이 5월을 싱그러움으로 표상되는 문학적 감상의 상징으로만 치부해 온 것 역시 수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짐짓 따지 걸고 싶어진다.

여기서 필자는 '조민범죄(弔民戕罪)'를 떠올린다. 당연히 '주발은탕(周發殷湯)'이 뒤를 잇는데, 발은 중국 주나라 무왕을 일컫고, 탕은 은나라를 개국한 임금을 일컫는다. 하(夏)나라의 임금인 걸(桀)이 포악한 정치를 일삼는 것에 분개해 탕왕이 걸을 토벌하고 세운 나라가 은나라이며,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주(紂)가 역시 포악한 정치를 하자 무왕이 그를 토벌하고 세운 것이 주나라라고 해서 불리는 4자(紂)이다. 이때 발과 무가 내세운 대의명분이 '조민범죄',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죄지는 자들을 무찔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들의 발기는 쿠데타로 정의된다. 말인즉슨 '조민범죄'라고 하나 '조민범죄'의 소임을 다한 이후에도 그들 자신의 정권을 세웠으니 순수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공자 역시 그런 연장선상에서 '순임금의 음악은 밖으로나 안으로나 모양도 의미도 아름답다. 그러나 무왕의 음악은 모양은 아름다우나 그 의미가 훌륭하다고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무왕의 집권을 폄훼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를 토대로 보더라도 '성공한 혁명을 쿠데타로 볼 수 없다'는, 말장난에 불과했던 우리 현대사의 일부는 그야말로 하나의 수사(修辭)에 불과하다. 그 결과가 지금, 5월의 한국 정치사로 나타나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국민은 쿠데타 세력이 '조민범죄'하지 않아도 국민 스스로를 위해 '주발은탕'과 격이 다른 방법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부를 언젠가는 세우는 것이다.

'주발은탕'과 '조민범죄' 이야기는 사실, 2003년 6월 발행된 김근의 《육망하는 천자문》(삼인)에도 자세히 나와 있다. 이 책의 가치는 무엇보다 중국문화에 국한하지 않고 그 지평을 세계로 확장했다는 데 있다. 이를테면 '주발은탕'의 '조민범죄'가 성립한다면 미국의 노예전쟁 역시 합리성을 획득하지 않느냐며 미국의 도덕성에 잣대를 들이댄 것은 중국 역사가 중국에 머물지 않고, 역사라는 것은 죽은 진실이 아니라 언제나 부활해 오늘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 준다. 그 실증을 우리의 한문학자가 해냈다는 것은 보통 반가운 일이 아니다.

리얼은 권력 해석 도교에서는 무정부상태를 지양했고 유교에서는 권력자들을 쫓고자 하며 비록 낯선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윤리적인 통치론에 주력했다고 분석한다

권력 버트런드 러셀 저 | 안철호 옮김 | 일민사 | 236쪽 | 12,000원

한국의 현대사는 5월을 중심으로 격랑에 휩싸여 흘러왔다. 4월에는 4·19혁명이, 5월에는 5·16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이, 6월에는 6·25전쟁과 6·10항쟁이 있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현대사의 축을 흐른 격랑의 물결은 서로 극점을 형성하고 있다. 감성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격랑들에는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혁명을 하기에, 쿠데타를 하기에 5월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춥지도 않고 덥지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버트런드 러셀의 《권력》(열린책들) 역시 오늘날 권력의 욕망에 대해 설파하는 바가 크다. 그는 공자와 자로가 만난 한 여인과의 대화에서 권력의 중핵이 무엇인가를 우화적으로 묘사하는데, 공자가 무덤 옆에서 울고 있는 여인에게 자로를 보내 “왜 무덤 곁을 떠나지 않는냐”고 물으니 여인의 대답이 아주 기묘했다. “이곳에는 압정을 일삼는 나랏님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여인의 대답이었다. 물론 여인이 무덤 옆에서 슬프게 울고 있었던 까닭은 무덤 자리에서 시아버지, 남편, 아들이 차례로 호랑이에게 목숨을 빼앗긴 때문이었다. 그러니 무덤 자리에서 운다는 것은 언제나 호랑이에게 목숨을 빼앗길 수 있다는 단서이기도 했다. 이 아이러니한 죽음의 현장에서 공자는 말했다.

“죽을 것을 행하는 나라를 호랑이보다 무서운 법이다.”

러셀은 이 같은 일화를 바탕으로 도교에서는 무정부상태를 지향했고, 유교에서는 권력자들을 중용과 자비를 갖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윤리적인 통치훈련에 주력했다고 분석한다. 한마디로 권력자들이란 골치 아픈 존재라는 사실을 동서양의 모든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셈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어도 압정이 존재했으니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이들이 얼마나 폭정을 일삼는가에 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된다.

러셀은 동서를 넘나들며 권력을 분석한 후 마침내 이런 결론을 내놓는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소수적인 것이어서 훌륭한 통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통치를 방지할 뿐이다.”

19세기의 인물 러셀이 21세기에든 수정되지 못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숙명적 단점을 정확히 꿰뚫은 것은 그만큼 정치의 속성이 시대를 뛰어넘지 못하는 보수 성향을 안고 있기 때문이며, 권력을 쥔 자들의 관념이 권력을 쥐지 못했을 때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폭정을 가할 수도 있다는 전제 역시 러셀의 혜안으로 정립된 것이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천자문으로 상징되는 중국의 역사와 서양 철학자 러셀의 분석을 통해 권력을 잡으려는 인간, 권력을 잡은 자들의 앞뒷면을 단편적으로나마 본 셈이다. 여기서 하나의 진실이 태동된다. 도덕적 근거를 지니고 있는 권력자도 한순간 폭정자로 변할 수 있으니, 도덕적 근거가 없는 권력자는 도덕적 근거가 없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폭정자로 불러 무방하다는 것이다.

5월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 현대

사의 암울한, 폭정자가 배태된 그 시기가 바로 5월이었다는 것이고, 그 치욕의 역사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어지더니 쿠데타의 주역 중 한 사람은 당당하게, 마침내 대통령에 번갈아가며 당선된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도 여전한 정치가로서 장수를 누렸다는 것이다. 얼마나 끔찍한가. 5월이 끔찍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 세월 속에 우리의 자화상이 숨어 있었다는 게 끔찍하다. **한**



이 책의 가치는 무엇보다 중국문화에 국한하지 않고 그 지평을 세계로 확장했다는 데 있다. 이를테면 주발은당의 조민벌죄가 심립한다면 미국의 노예전쟁 역시 합리성을 획득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도덕성에 잿대를 들이댄 것은 중국 역사가 중국에 머물지 않고, 역사라는 것은 죽은 진실이 아니라 언제나 부활해 오늘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 준다.

● **독할 때는 천자문 읽군 지음** 311면 728쪽 값 25,000원

● **이 글을 쓴 임동현은**

1985년 단편 〈묘약을 지으며〉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민통선 사람들》 《기억의 집》 《편지를 읽는 시간》 등의 소설, 《길에서 시와 소설을 만나다》 《가족식사》 등의 산문집, 《풍경》 《가족》 《이기에게》 등의 사진에세이집을 냈다. 일간지 기자를 거쳐 《출판저널》 주간을 지냈으며, 현재 한양여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로 있다. 최근 소설집 《벌》을 냈다.